

## 민수기 33장

# 40년 광야 여행의 회고와 새 땅에서의 정복 지침 (찬송 21장)

2025-10-15, 수

### 맥락과 의미

민수기의 후반부는 26장의 인구조사에 이어 27장에서는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딸들이 그 땅을 상속하는 제도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36장은 이렇게 땅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원래 지파에 땅을 남겨 주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에 미리 가슴을 띠게 합니다. 31,32장에 미디안을 정복하고 정복지를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34장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족장들을 정하고 35장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과 도피성의 위치를 정합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땅에 대해 말하면서 33장은 과거 40년간 여행한 곳을 기록하고,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합니다.

1. 광야 40년 여정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심 (1-49절)
2. 가나안 정복과 땅을 나누는 것의 철저성을 명령함 (50-56절)
3. 구약백성의 여정과 땅의 분배, 그리스도와 교회

### 1. 광야 40년 여정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심 (1-49절)

1-49절은 앞 뒤의 흐름 가운데 끼어 넣은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거를 정리해 줍니다. 이 말씀을 읽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40개의 지역명이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 1) 애굽에서 나옴 (1-4절)

지나온 이야기는 군대로서 성공적으로 전진해 온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즉 그들의 손에 의해, 대오를 갖추어

나왔습니다(1절). 대오는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로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1절)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손의 역할을 하여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와 명령대로”(2절) 했습니다. “명령”은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입술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 그들은 손을 들어 인도했습니다. “큰 권능으로, 즉 여호와와 “높이 든 손으로”(3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장남들의 장례날이었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벌주셨습니다(4절). 우상과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승리한 날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 곳의 우상을 징벌하며 우상숭배자들에게 벌내릴 것입니다.

앞으로 말하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여행한 것, 여행하며 다음 출발지로 간 것을 기록합니다.

## 2)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6-15절)

우선 이집트에서 시내산 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8절, 출애굽기 15장). 거기서 목말라서 찾은 샘은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곳을 단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종려나무 70개가 있는 엘림에 진을 쳤습니다(출애굽기 15:22-27).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14절). 백성은 다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을 백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출애굽기 17:1-7).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15절, 출애굽기 19:1).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이집트를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는 3월에 도착했습니다.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 3)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6-37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출애굽기 19:40장).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 제도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레위기). 다시 출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민수기 1-10장). 2월 24일 여호와와 구름기둥을 따라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민수기 10:11).

시내산 떠난 후 첫 도착지가 기브롯 핫다와입니다(16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지만 불평한 주동자들은 심판하셨습니다(민수기 11장). 거기서 떠나 하세롯에 도착했습니다(18절). 이곳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하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19-34절에 나온 여행지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0-34절은 민수기 10:6-7절에 나오는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시온 게벨을 통과하여 (35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36절).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14장에서 열 두 정탐꾼 중 열 사람이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백성이 함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의 성인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유리하게 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39년 광야 여행 끝 무렵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민수기 20장). 아마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이후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 출발을 한 듯합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습니다(민수기 20:22). 약속의 땅 바로 남쪽에 있었지만 북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둘러 갑니다. 동쪽으로 에돔 나라의 호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37절)

#### 4)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38-49절)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여호와와 명으로 죽었습니다(38-40절: 민수기 20장).

이후 가나안 땅 아랏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40절). 그가 이스라엘 백성 얼마를 사로 잡아갔고 백성은 그 왕을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민수기 21:1-3절).

그후, 호르산(41절, 21:4)을 떠나 에돔 땅 바깥으로 동쪽으로 빙 돌아 갔습니다(민수기 21:1-9). 살모나 → 부논 → 오봇(43절, 21:10)에 진을 쳤습니다. 오봇 → 이에라라림(이임, 43, 44)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압평지(48절)에 도착했습니다(민수기 22:1).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 그들은 모압 땅을 둘러서 갔습니다. 그 길에서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아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민수기 21:4-22:1).

모압 평지에 있던 백성의 진은 아벨싯딤까지 넓게 있었습니다(49절). 아벨싯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25:1-18절).

149절은 첫째,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심판의 기록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기록입니다. 구약성경의 독자들은 이 조상의 여행의 기록을 여러 시대에 걸쳐 읽었을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 왕조 시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던 시대에 맞게 의미를 깨닫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대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용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끝까지 천국을 향한 여정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 2. 가나안 정복과 땅을 나누는 것의 철저성을 명령함 (50-56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취하라고 하십니다. 즉 정복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산업으로 주었음이라” (52절). 하나님은 먼저 기업으로 선물해 주신 것을 백성들이 정복하여 취하라고 합니다.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함하여 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영역, 가정과 직장, 하나님이 주심을 확신하고 취합니다.

둘째,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우상을 파멸하고, 우상숭배의 장소인 산당을 다 깨뜨려야 합니다 (52절). 이집트와 이집트의 우상을 징벌하고 언약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거민과 그 우상을 다 몰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내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삽시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확장합시다.

셋째,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가족의 규모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땅에서, 가족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사람에게 하려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문화에 섞일 때,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타협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 **3. 구약백성의 여정과 땅의 분배, 그리스도와 교회**

#### **1) 구약 성도의 여정과 땅의 분배**

민수기 33장은 40년 광야 여행의 장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며 돌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다시 그들을 용서하며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을 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은 당연합니다.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그 땅의 우상과 우상숭배자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 **2) 그리스도와 교회**

구약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롬 8:17)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갑니다. 이 땅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광 받기 위해 고난 받으면서 나갑니다.

### 믿고 복종할 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계속 거룩하게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우회하면서 평화를 지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나라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장과 기업에서 우리 자신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우상 숭배적인 것을 없애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롬 8:37).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께서 주신 삶의 기준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온유한 자들인 우리들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십니다(마 5:5).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